



불교언론의 새 지평 열었다

현대불교신문사 5년 연표

년 도	내 용
93년 12월13일	'현대불교' 신문 정기간행물 등록
94년 7월	현대불교신문사 사옥 '한마음불교회관' 개관
94년 8월23일	불교전문채널 '여시아문' 개점, 다원 '독수창산' 개점
94년 10월14일	현대불교 창간 기념 리셉션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94년 10월15일	'현대불교' 신문 창간
94년 3월2일	출판사 '여시아문' 등록
95년	여시아문 소식지 창간호 발행 창간 1주년 기념 기획-제1회 신행수기 공모(이후 매년 실시중)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대법회(10.14-11.1) '전국 전통사찰 안내지도' 제작 보급
95년 10월16일	교계 최초 전자계시판 부다피아(BBS) 개설, 시연회
96년 1월3일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현대프로덕션 발족
96년 4월1일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 인터넷 사이트 부다피아 서비스 개시 중·고교에 대상용 미륵반가사유상 보급운동 전개
96년 5월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96년 5월14일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순례/아빠와 함께 남한산성 걷기 대회
96년 10월16일	2주년 기념 제2회 신행수기 공모
96년 10월23일-29일	책방 여시아문 '사보의 세계로 초대' 전시회
96년 10월30일	100호 기념 기획사업 수미산 문학기행-무욕도 간월암 참배
97년 4월2일	20면 증언
97년 5월 1일	한겨레 1천원 '그들진 곳에 법보시 운동' 전개
97년 7월	봉은사에서 재활용 알뜰시장 새싹불자 무료도서보급 1만2천권 사찰/단체 특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동 전개
97년 10월1일	24면 증언
97년 12월29일	본사 김광삼 사장 '문화유산의 해' 기념 불교문화테마기행 신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감사패 받음
98년 2월28일	현대불교신문수기 당선자 모임 신수회 결성
98년 3월4일	pcs 포교기금 소책자마을에 첫전달
98년 4월1일	현대불교신문 검색-연람서비스 가동
98년 4월26일	제1기 명예기자 29명 선발
98년 4월29일	부다피아 인터넷 통신 LG 채널아이에 불교정보 독점서비스 개통
98년 6월17일	현대불교신문 교계 최초용 기사실명제 및 이메일 ID 표기
98년 7월23~25일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 개최(이후 매년 1회 실시중)
98년 12월16일	TV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인터넷TV에 불교정보 독점제공
98년 12월30일	현대불교신문 1주좌 1천원 법보시운동 5만구좌(누계) 돌파
99년 1월6일	제4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99년 2월27일	2월 문화인물 '혜초' 기념음악회(진각종 공동주최) 제2기 명예기자 선발
99년 5월10일	부다피아에 교리·교육·세무·의학·법률 등 5개 상담코너 개설
99년 5월17일	20세기 고승 16인 기념메달 제작 보급 착수
99년 5월19일	사이버 붓다 제작, 99 불교예술대전 '사이버법당'에서 공개
99년 6월8일	불교전문 사이버 백화점 '물 부다피아' 제1회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에서 전문분야 우수사이트에 선정

현대불교 5년

-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 대생용 반가상 보급
- 불교문화 테마기행
- 혜초음악회 개최
- 교계 첫 정보센터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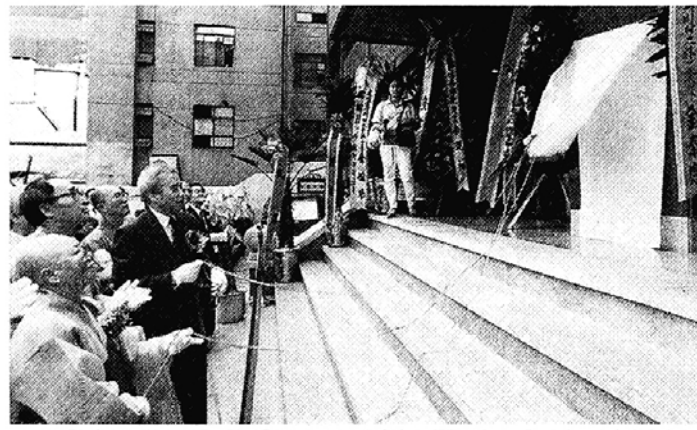


IMF위기극복을 기원하며 범종단 전국순회법회로 국민적 관심속에 열린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1994년 10월15일 신행수기 공모로 창간한 현대 불교신문은 16면 가로쓰기를 선보이며 최대 지면·최고 부수 발행으로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불어넣었다. 경영 편집제작 등 각 분야에서 진보적인 시각과 도전으로 '알서가는 신문'의 이미지를 확립하면서, 교계 신행풍토에 새 장을 제시했다. 특히 일반불자들의 수평을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으며, 불교의 사회화를 위한 각종 기획과 비전 제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불교계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문화 진작은 불교 위상 제고에도 특색이 역할했다. 특히 불교계 처음으로 독자적인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설립해 불교정보화의 새 장을 열었다. 창간 1주년 되는 95년, PC통신 불교전자계시판을 가동했고 1년후 인터넷을 통해 불교종합정보를 전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전통문화 계승과 맞닿은 불교문화 전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이를 지면에 반영 교계 여론을 선도했다. 96년 4월부터 전국 일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미술교재로 대상용 석고모형 미륵반가사유상을 보급했다. 이 운동을 통해 1년동안 전국 306개 초·중·고·대학교까지 확대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중

교를 초월한 전통문화 교육 운동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테마기행을 개최한 본사는 1년 동안 통도사를 시작으로 내소사 석굴암 부석사 해인사 운주사 등 특집적인 불교유산 순례를 가졌다. 불자들은 물론 비불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그 여세를 98년에는 문화체험학교를 신설, 생계사 차축제, 용성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등 주제가 있는 순례기행을 시도했다. 이어 올해는 가사산문, 실상산문, 동리산문 등 각 산문을 찾아다니며 참선을 맛볼 수 있는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갖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실천불교활동에도 알서가는 언론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해방이후 최대의 국가적인 위기라는 IMF 상황에서도 현대불교신문은 지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참회를 통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순회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를 8차례 걸쳐 개최해 현대적의미의 호국불교 의지를 드날렸다. 또한 99년 2월 문화인물로 선정된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혜초스님을 기리는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음악회를 진각종과 공동으로 개최해 불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

었다. 한편 불교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면서 간과되어지고 있는 어린이포교에 대한 현대불교신문의 관심과 지원은 역력했다. 불교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어린이를 위해 97년 7월에는 도서출판 동쪽나라와 공동으로 '새싹불자 무료 도서보급운동'을 펼쳐 어린이불서 등 1만2천권을 전국 사찰과 관련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본사는 창립부터 꾸준히 불교의 사회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95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불자의 집' 가정용 차량용 스티커 보급 캠페인을 벌였다. 96년 '새싹불자를 키우자', 97년 '참회의 삶을 살자' 98년에는 '작은 실천 큰 기쁨'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각계의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자'를 통해 종단 문화 학술 복지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불교계 현안문제를 지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세100년 고승 16인의 기념메달을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제작해 보급하면서 20세기를 뜻깊게 마감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은 큰스님들의 덕화와 사상을 기리면서 21세기를 열고 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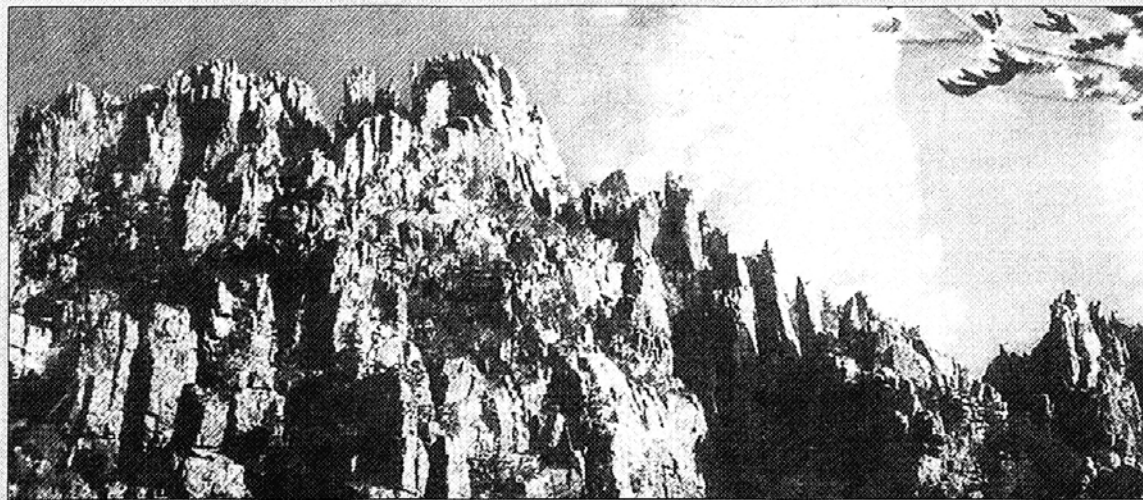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사옥 한마음불교회관 개관식, 대행스님, 고은시인, 김광삼사장의 모습이 보인다.



새싹불자에게 불심을 심는 어린이포교의 상징 여름연합캠프.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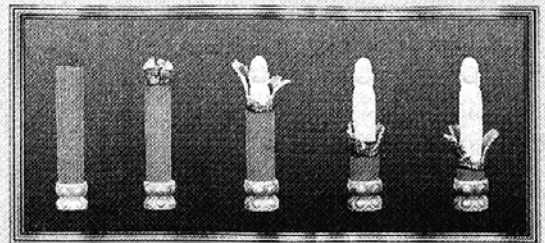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제조원 : 금성 통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2)732-1522 • Fax: (02)737-0697
- Tel: (051)324-3731 • Fax: (051)324-3733
-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http://mail.buddhopia.co.kr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 경품내용: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법패집 각 1질)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마하몰상 : 200명(법성계갈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누십니다